

선발인원 소폭 증가... 수능성적·인적성면접서 성패

2021대입 의학계열 지원전략

<下> 정시모집

치대·한의대는 큰 인원 변동 없이 대부분의 대학들 수능 100% 반영 인·적성 평가 적용 필요성 증가세

◆ 정시 의대 선발 인원 소폭 증가... 서울대·전남대 치대 정시 선발

2021학년도 의학계열 정시모집 선발인원은 정원내 기준 의대 1113명, 치대 242명, 한의대 289명이다. 지난해 정시 선발 인원보다 치대와 한의대는 큰 변동이 없으며 의대는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부산대 등이 정시 선발 비율을 늘리면서 선발 인원이 다소 늘었다.

서울대 치대 학·석사통합과정은 지난해까지 수시모집에서 100%를 선발하고 이월 인원만 정시모집에서 선발했으나 올해는 수시와 정시모집에서 분리 선발해 5명을 정시 가군에서 선발한다.

전남대 치대는 정시에서 지역인재 전형만 선발했으나 일반전형을 신설해 가

<2021학년도 의대 정시군별 모집대학>

구분	지역	가군	나군	다군
의대 (37개교)	서울·수도권	경희대(34) 서울대(30) 아주대(10) 이화여대(61) 중앙대(40)	가천대(15) 가톨릭대(30) 고려대(20) 성균관대(15) 연세대(26) 한양대(62)	인하대(9)
	강원·충청	건양대(15) 연세대미래(28) 충남대(45)	을지대(17) 충북대(29) 한림대(38)	가톨릭관동대(15) 단국대천안(25) 순천향대(38)
	영남	경북대(35) 경상대(35) 동아대(19) 부산대(35) 인제대(37)	영남대(35) 울산대(10)	계명대(30) 고신대(26) 대구가톨릭대(20) 동국대경주(19)
	호남·제주	전남대(50) 전북대(57) 조선대(56)	원광대(27)	제주대(20)

/자료=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

군에서 3명을 선발한다.

지역인재 전형은 지방대학 의학계열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고교 출신자 중에서 선발하는 전형으로 정시모집에서 의대는 경상대, 동아대 등 8개 대학에서 총 133명을 뽑는다. 치대는 조선대, 전남대에서 13명, 한의대는 대전대에서 8명을 선발한다. 지역인재 전형

은 수시모집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높으며 일반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의 경쟁률과 합격선이 일반전형에 비해 낮기 때문에 조건을 갖춘 해당 지역 학생들은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정시는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의대는 인·적성 면접 실시

정시모집에서는 대부분 대학이 수능 성적만으로 모집 인원을 선발한다. 단, 한양대 의대가 학생부를 10% 반영한다. 올해 면접 비율을 20%에서 5%로 줄인 아주대 의대가 정시에서 유일하게 면접을 점수에 반영한다. 인·적성면접은 보통 점수화하지 않고 결정 여부판정 기준으로만 활용하며 인제대도 올해부터 인·적성면접을 한다.

의대 중에는 이화여대와 가톨릭관동대가, 치대 중에는 원광대가 계열별로 인원을 분리해 선발한다. 가톨릭관동대는 인문계열 학생의 수능 응시 영역을 수학과/나+사/과탐에서 수학과+사탐 응시자로 변경했다. 순천향대 의대는 수학과/나, 사/과탐 응시자 모두 지원이 가능해 인문계열 학생의 교차지원이 가능하지만, 수학과 과탐 응시 가산점을 10%씩 부여해 교차지원 시 불리함이 크다.

한의대는 부산대학·석사통합과정을 제외하고는 계열별로 인원을 분리해 선발하거나 수학과 탐구 영역에 응시 제한이 없어 교차지원이 가능하다. 가천대 한의대는 인문, 자연 인원을 분리해 선발했으나 올해는 통합 선발하면서 영역별 응시 제한을 없앴다. 계열별 인원

분리 없이 수학과 탐구 영역에 응시 제한이 없어 교차 지원이 가능한 경우 상지대와 동신대, 우석대는 수학과 과탐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가천대와 세명대는 수학과 과탐 영역에 가산점을 부여해 교차지원 시 우월리를 따져봐야 한다.

지난해에 이어 수능 영어 영역 비율을 축소해 대학이 있다. 이화여대 의대는 영어를 5% 줄이고 인문은 국어, 자연은 수학과 비율을 5% 늘렸다.

조선대의대와 상지대 한의대가 올해 수능 탐구 반영 과목 수를 2과목에서 1과목으로 변경해 의대 중에는 조선대와 대구가톨릭대가, 치대 중에는 조선대가, 한의대 중에는 상지대, 동신대, 대구한의대가 탐구를 1과목 반영한다.

이만기 소장은 "코로나19가 연일 맹위를 떨치며 의료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자연계 고득점자라고 해서 무조건 의학계열에 지원하고 보는 상황은 아니어야 한다"라면서 "예비 의사들에게 인·적성 평가 적용의 필요성이 지속해 요구되면서 인·적성면접을 하는 의대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성신여대, '신기술분야 융합디자인 전문인력양성사업' 선정

기업과 공유형 학습... 특화된 석·박사 인재 육성

(AI·인텔리전스)

2020년 2학기 첫 입학생 선발 연구비 605만원·장학금 330만원



성신여대 캠퍼스

성신여자대학교가 기업과 공유형 학습 등 교육 협력을 통해 AI·인텔리전스 서비스디자인 석·박사 양성에 나선다.

12일 성신여대에 따르면, 성신여대 서비스·디자인공학과와 미래융합기술공학과(대학원)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신기술분야 융합디자인 전문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대학-기업 간 공유형 학습 및 교육 협력을 기반으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신산업분야 특화 석·박사급 우수 디자인 전문인력을 양성·공급하는 사업이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주

관하에 성신여대가 사업 총괄을 맡고 U·NIST,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한서대학교가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 선정에 따라 성신여대는 향후 5년간 17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AI·인텔리전스 서비스디자인 분야의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2020년 2학기

에 첫 입학생을 선발하고, 선발된 신입 대학원생은 605만원의 연구비와 평균 330만원의 장학금 혜택을 지원받는다. 또한 위니아SLS, 신세계TV, MANIFESTO, 메이디(중국) 등 국내외 우수기업들과 함께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우수학생은 CES 2021 등 다양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참여대학 컨소시엄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성신여대 최민영 교수는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AI 기술과 서비스디자인을 융합한 미래인재로 성장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도전을 바란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성신여대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융합디자인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

강원대, 김현영 現 총장 1순위 임용후보 선출

교수·학생·직원 참여하는 선거 진행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차 투표'를 실시한 결과 기호 4번 김현영 후보가 44.62%(365표)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기호 3번 주진형 후보 23.35%(191표) ▲기호 1번 이원규 후보 20.17%(165표) ▲기호 2번 신효중 후보 11.86%(97표)를 각각 득표했다.

강원대 제12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김현영 現(現) 총장(사진)이 1순위 임용후보자로 선출됐다.

강원대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위원장 김만구)는 11일 춘천캠퍼스 백령아트센터와 삼척캠퍼스 제5공학관에서 '제12대 강원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진행하고, 기호 4번 김현영 후보를 1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교수·직원·학생들이 현장PC투표와 모바일·이메일 투표를 통해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는 ▲김현영 교수 ▲주진형 교수 ▲이원규 교수 ▲신효중 교수 등 총 4명의 후보자가 출마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진행된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오전

총추위는 1차 투표에서 유독득표수의 과반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었기에 따라 오후 2시 30분부터 상위 1, 2위를 차지한 김현영 후보와 주진형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했으며, 김현영 후보가 55.38%(489표)를 얻어 최종 1순위 임용후보자로 선정됐다. 2순위 주진형 후보는 44.62%(394표)를 얻었다.

/이현진 기자 lhj@

장애학생 위한 국내 첫 특수학교 설립된다

교육부 공주대 옥룡캠퍼스내 건립

3월 개교가 목표다.

충남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 부지에 국내 첫 장애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특성화 특수학교가 설립된다.

교육부는 장애학생을 위한 직업교육의 새 모형을 될 '공주대 사범대 부설 직업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주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는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국 단위 모집 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교로 2022년

장애 학생의 특성과 산업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6개 전공을 설치해 전공별 교육과정을 전문화할 예정이다.

설치되는 전공은 ▲디지털정보(데이터 입력, 컴퓨터 활용, 사진·영상 편집) ▲휴먼서비스(간병·요양 보조, 환경 미화, 공공기관 사무지원) ▲외식서비스(조리, 바리스타, 제과·제빵) ▲공연예술(공예·무대·방송, 문화 콘텐츠 제작) ▲제조유통(조립·포장·유통) ▲농생명

산업(특수동물 사육, 반려동물 서비스, 스마트팜 운영) 등 6개다.

기존 특수학교에서는 제과·제빵·바리스타 등 분야가 제한됐으나, 공주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는 대학이 보유한 교육 자원과 연계해 더 다양하고 심화된 교육과정 제공이 가능하다.

1,2,3학년별 42명씩 총 126명이 입학할 예정이며, 한 학년은 6학급으로 한 반에 7명씩 배정된다. 2022년 첫 신입생 42명을 선발한다.

교육부는 학교 설립을 위해 설계비 13억여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22억원을 확보해 공주대에 지원한다.

/한용수 기자

청주대,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 선정

5년간 35억 7000만원 지원

부가가치화와 신성장 산업 서비스발굴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게 된다.

청주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융합클러스터 2.0'(특화산업 강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청주대는 충북도지식산업진흥원과 협력해 지역 특화산업에 소프트웨어(SW)를 융합해 신시장 창출과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SW 융합클러스터 2.0사업'은 청주와 진천을 거점으로 반도체 기업과 SW 기업을 지원해 기존 반도체 산업의 고

주요 사업은 SW융합 기반 조성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SW융합 상용화 지원 및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 SW융합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청주대는 이 중 SW 융합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분야에 참여해 앞으로 5년간 현금 33억원과 현물 2억7000만원 등 총 35억7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현진 기자 lhj@